

##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19-25, 32-36)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19-20a)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정결예식을 마친 후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예배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두툼한 지성소 휘장을 찢고,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갈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이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수치심, 열등감도 유월절 어린양 가죽옷으로 감싸 주시는 은총입니다.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초대교회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3 가지 핵심가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22 절), 소망(23 절), 사랑(24 절) 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v.22a)

**확고한 믿음**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 구원 받았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 오직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잘남, 효율성, 출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보혈이란 말입니다. 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럽고 추한 부분을 정결하게 씻겨 주십니다. 오직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됩니다. 이어지는 23 절 말씀은 ‘**소망의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v.23)

소망의 근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나 속삭임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것,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보지 말고,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지켜 나가십시오.

마지막 세번째는 '사랑의 권면' 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히브리서 10:24)

사랑에 관한 권면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으로 격려하라'** 입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써서' 정성껏 내 마음을 쓰는 희생이 따라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은 향유를 열기 전에 이미 마음을 열었고, 향유를 붓기 전에 벌써 마음을 다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마음을 써서' 사랑합니다. 힘들고 지친 분이 곁에 있다면, 마음을 써서 사랑의 격려를 드립니다. 혼자 애쓰고 있는 분을 본다면, 묵묵히 마음을 쏟아서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 권면을 준 까닭이 있습니다. '3 중 권면'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25 절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v.25)

초대교회 당시에도 순교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버리는 배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권면을 붙잡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를 벗어나 끼리끼리 개인적으로 새로운 모임을 만든 사람. 26 절부터 31 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점잖은 권면이 아니라 경고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짓밟고, 성령을 모욕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면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 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v.32b)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v.34)

믿음/소망/사랑의 위로와 권면은 초대교회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중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를 꼭 드려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분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 분도 큰 힘을 얻습니다.

격려 뒤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v.36) 왜 고난의 시간이 그토록 견디기  
힘드냐면, 그 뒤 편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4, 개역개정)

고난은 인내와 연단의 창문을 통해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것 붙잡지 말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 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곧 이어 12 장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2a)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베풀어내며 인내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인내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 [속회자료]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430 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히브리서 10:19-25, 32-36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언제, 어떤 상황에서 쉽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십니까?
2.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3. 평화를 전하고, 또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한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해보세요.
4. 사랑하는 속회식구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305 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기도문